

동남아 정치·경제·사회 들여다본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 유튜브 채널 통해 온라인 설명회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소장 전제성)와 (사)한국동남아학회(회장 정연식),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VIP진출기업현장지원사업단(단장 채수홍) 공동으로 제1회 동남아지역 동향 설명회가 열려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4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동남아학회지 '동남아지역연구' 30권 1호와 2호(5월말 발간 예정)의 특집 '2019 동남아시아 리뷰'의 필진이 직

접 나서 동남아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를 분석한다.

동남아 10개국 및 아세안의 지난해 동향과 2020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심도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 동남아시아 진출(희망) 기업, 신남방정책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민지 박사(전북대)가 동티모르편을, 이요한 박

사(한국외대)가 라오스편, 김형중 박사(연세대)와 황인원 박사(경상대)가 말레이시아편, 김희숙 박사(전북대)가 미얀마편, 임시연 박사(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싱가포르편, 정연식 박사(청원대)가 캄보디아편, 백용훈 박사(서강대)와 이한우 박사(서강대)가 베트남 편, 엄은희 박사(서울대)가 필리핀 편, 이지혜 박사(서울대)가 인도네시아편, 한유석 박사(전북대)가 태국 편, 이재현 박사(아산정책연구원)가

아세안편을 맡는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제성 소장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중 동남아 10개국 및 아세안의 동향을 모두 포괄하는 사상 최초의 설명회"라며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동남아 국가의 면면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온라인 설명회는 유튜브에서 '동남아지역 동향 설명회'를 검색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전주시민축구단은 프로리그 출신 4명을 비롯해 K3리그와 대학출신 11명, 성인무대 첫 발을 내딛는 신인 4명 등 모두 20명을 영입했다.

“공격축구로 재미 선사”

전주시민축구단, 20명 폭풍 영입... K3리그 중위권 도전

K3리그 개막을 앞두고 전주시민축구단이 선수 영입을 통한 전력 보강을 마쳤다.

전주시민축구단은 7일 프로리그 출신 4명을 비롯해 K3리그와 대학출신 11명, 성인무대 첫 발을 내딛는 신인 4명 등 모두 20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수 영입으로 전주시민축구단은 K3리그에서 중위권 도전에 나선다.

고강준(MF.28)은 안양FC 등 프로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미드필더로 넓은 시야로 공·수를 조절하며,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가졌다.

광주FC에서 임대로 온 임진우(DF.26)는 신체조건이 좋아 공중볼 처리와 대인방어 능력이 뛰어나며, 또 부천FC를 거쳐 입단한 명성준(DF.22)은 대인방어와 지능적인 수비 능력을 갖췄다. 하승준(FW.22)은 벨기에 2부리그인 AFC투비스에서 활약했으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저돌적인 돌파가 장점이다. 목표시점을 거쳐 입단한 이경택(MF.24)과 이경민(MF.22)은 활동량이 많으며, 볼배급 능력이 뛰어나다. 김근용(FW.23)은 김포시민축구단을 거쳐 입단했으며, 공간 침투능력이 뛰어나고 골 결정력이 높은 스트라이커다. 프로리그와 K3리그에서 뛰었던 최인창(FW.29)은 위치 선정이 뛰어나고 큰 키를 이

용한 헤더 능력이 뛰어나다. 2년만에 친정 팀으로 돌아온 이근호(MF.26)는 미드필더로 드리블과 돌파가 장점이다. 김종석(MF.23)은 전주대를 거쳐 입단했으며, 멀티플레이어로 활동량이 뛰어나다. 이동준(FW.24)과 임동혁(FW.23)은 각각 중원대와 강원한라대를 졸업했으며, 측면 공격수로 드리블과 스피드가 장점이다. 주승혁(FW.22)은 중원대를 졸업하고 입단했으며, 활동량이 많고 양발을 이용한 크로스가 장점이다.

국제사이버대를 거쳐 입단한 수비수 이주영(DF.20)은 신체조건이 좋아 공중볼 처리가 뛰어나며, 최육동(DF.23)은 배제대를 졸업했으며, 대인방어와 지능적인 수비 능력을 갖췄다.

초당대를 거쳐 입단한 장기석(GK.22)은 골키퍼로 순발력과 민첩성이 뛰어나 K3리그 최저 실점률에 도전한다. 성인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신인으로는 공격에 몰신현대고(MF.24)와 이경민(MF.22)은 활동량이 많으며, 볼배급 능력이 뛰어나다. 김근용(FW.23)은 김포시민축구단을 거쳐 입단했으며, 공간 침투능력이 뛰어나고 골 결정력이 높은 스트라이커다. 프로리그와 K3리그에서 뛰었던 최인창(FW.29)은 위치 선정이 뛰어나고 큰 키를 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 전문성 향상·교육력 신장나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나섰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전문연수를 오는 9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지원단의 전문성을 높여 2021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오전에는 관공과 조만기 교사가 2021학년도 효율적인 대학 입시 방향을 안내하고, 오후에는 효율적인 대학진학지도 운영을 위한 팀별 협의 및 운영계획 발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조 교사는 2021학년도 대입지도 포인트로 △2015 교육과정(문이과 통합/진로선택과목) △인구 감소의 두 번째 해 △수소도전 정시 인원 증가(2022년 확대) △생활기록부 기록 축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 등을 꼽고, 대학별 특이사항 등을 설명한다.

오후에는 각 팀별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시분석·자료개발팀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 자료개발 방안, 학생부 종합전형 연구팀은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분석을 통한 학생지원 방안, 수능전형 연구팀은 서울주요대학 정시비중 증가에 따른 수능 성적향상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은 2021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안내 및 지원 전략에 대한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지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진학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은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자로 영양사를 지정하려고 한다'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권한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권한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등 전북교육청에 반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은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자로 영양사를 지정하려고 한다"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권한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2017년 2월부터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또한 지난 1월 10일부터 산

업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노동자들도 산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노동안전 담당 인력을 채용해 인성건강과 산하 급식팀에 배치하고, 2020년 7월1일부터 인성건강과 산하 급식팀에서 분리해 산업안전보건팀(담양)을 신설해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성건강과 산하 산업안전보건팀을 신설했으

며,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운영되지만, 영양사를 산업안전관리법상 관리감독자로 전담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각시도 안전담당부서 현황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행정국 노사협력과, 대구교육청은 행정국 교육복지과, 울산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행정국 안전총괄과, 광주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정책국 안전복지과, 제주교육청은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교원, 유학생에 '사랑 나눔' 장학금 쾌척

전주대학교는 7일 유학생서비스센터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8명의 유학생들에게 '사랑 나눔'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편용우 교수(일본언어문화학과) 등 28명의 동기교원들과 양성은 교수(드림교회 담

임목사) 등 '기독교와 문화' 교과담당 교원 5명이 뜻을 모아 마련했으며 총 42만원이 모였다. 기부에 동참한 교원들은 유학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중 40만원을 8명의 학생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